제3회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내용 확대 라운드테이블
Roundtable discussion on UK Secondary Education and Korea

주영한국교육원 2020.11.09.

□ 목적

○ 영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기술 내용 확대를 위한 설문 조사 결과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 논의

□ 세부 내용

○ 일시 : 2020. 10. 26 (월) 오후 1시 ~ 3시

○ 온라인 플랫폼 : Zoom 온라인 화상 미팅

○ 참석자 :

(우리측) 김수경 교육원장, 정혜라 실무관

(상대측) 임소진 교수(진행) 및 연사 6명

- 임소진 교수(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국제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 Dr Ed Griffith(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인문 언어 국제학부 부학장)
- Dr Kevin Gray(서섹스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 Dr Michael Maddison (역사교육과정 컨설턴트, Maddison Education Consultancy 원장, 영국역사협회 부회장, 역사 교사, 역사교과서 저자, 평가위원, 전 영국 교육표준청 역사부야 자문)
- Dr Niki Alsford(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Asia Pacific Studies학과 교수, 국제 한국학 연구소 공동 소장)
- Dr Owen Miller(Lecturer in Kore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 Mr Richard McFahn(서섹스 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호더 출판사 역사 교과서 집필자, 역사 교사들을 위한 History Resource Cupboard 웹사이트 운영)

□ 라운드테이블 논의사항

○ 지난 1·2차 라운드테이블 논의 사항 리뷰

[1차 라운드테이블, 센트럴랑카셔 대학교]

- 현재 영국 중등 교과서(A-Level, GCSE)에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전쟁 관련 내용만 수록되어 있음

- 커리큘럼을 바꾸거나 한국 관련 내용만을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나 영국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에 한하여 여러 과목(음악, 문화, 지리, 경제 등)의 케이스 박스(수업관련 주제 모음)에 적용 가능

-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 교사들이 제대로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

[2차 라운드테이블, 주영한국대사관]

-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Exam board를 설득하기 위하여 영국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함

- 설문조사 실시 필요성 대두.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한 당위성이 타당한지 알 수 있음

- 한국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해 저자들 구성이 중요. 한국 출신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영국 학자들로 구성되어야 함

- 역사교육학회 등의 교사 커뮤니티에 한국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왜

영국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설득할 수 있음

○ **영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기술 내용 확대를 위한 영국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논의**

- 영국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의 언어나 주요 외국어 외에는 한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언어로 조사된 점이 흥미로움. 설문결과로 보면 프랑스어, 독어, 스페인어와 같은 주요 외국어를 대체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국어에 분명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됨.

- 설문 결과는 매우 흥미로우며 이제까지의 우리의 논의를 확인해 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다른 면모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영국 언어 교육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어보다는 경제, 지리, 음악 등의 과목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음. 또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등교육에서 배우고 나면 대학수준에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에 대하여 엿볼 수 있는 설문 조사였음. 많은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특히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중 학생의 연령과 외국어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어린 학생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 흥미가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함. 따라서 나이가 많은 중등학교 학생들보다도 초등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성별 요소에 의한 관심의 차이도 주의 깊게 살펴봄. UCLaN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대다수는 여학생인데, 설문을 진행한 중등학교 연령에서는 남학생들의 비율도 역시 높음. 이 학생들의 관심이 대학교 레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대두됨

- 현재 영국 중고등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로 보아 언어 교육 커리큘

럼의 변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다른 여러 사회과 과목의 시험 관련 주제 및 케이스 스터디 주제를 공략하는 것이 더 실현가능한 목표임

- 조사 대상의 지역 및 인종, 문화적 배경, 그리고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기 전, 사전 준비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새로운 언어가 GCSE를 시작했던 경험을 알아보면 좋을 듯. 중국어 GCSE, A-level 시험이 개발된 것은 영국 내 중국인 커뮤니티의 규모가 매우 크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임.

- 영국 초등학교에서의 언어 교육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음. 따라서 초등교육과정에 한국어가 도입되는 것은 어려울 것. 다만 방과 후 클럽으로 소개하고 시작하는 것을 권함. 정식 교육도 좋겠지만 방과 후 교육으로 시작하는 것도 잠재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음.

- Korean GCSE, A-level 개발이 목적이라면 이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초중등 방과 후 한국어 수업과 같은 우회적인 접근이 필요함. 방과 후 수업은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증대시키는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음. 주영한국교육원에서는 39개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궁극적으로는 GCSE나 A-level이 목표이겠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과 후 클럽을 통해 우리만의 K-wave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 우리는 한국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더욱 피력해야 함. 따라서 우리는 한국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많은 한국 관련 콘텐츠가 필요하며, 이로써 교사들과 Exam board를 설득할 수 있음.

○ **영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기술 내용 확대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구체적인 방안 논의**

- 한국관련 자료를 개발해도 교사가 관심 없다면 소용이 없음. 어떻게 관심을 끌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교과마다 중등학교 교사들의 모임/ 컨퍼런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사를 활용, 교사가 교사들에게 소개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좋겠음(예: Languages Association www.all-languages.org.uk/)

- 우려되는 점은 영국 전역이 아닌 한정된 지역에서 방과 후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도심에서 거리가 멀고 한국문화에 노출이 적은 지역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함

- 민족적인 이유로 인해 방과 후 클럽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이 되어야 함

- UCLaN에는 세종학당이 설치됨. Exam Board에서는 공자학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내 수요에 관심이 있음. 한국어 클럽이나 세종학당이 런던 근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영국 중서부 Preston지역 UCLaN에 세종학당이 설치됨으로써 맛보기 수업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앞으로 한국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GCSE나 A-level 한국어의 수요의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 한국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저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역사 교사 모임에서 이번에 Co-teacher Fellowship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학교 교사들이 최신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과 주말에 만나 함께 공부하고 프로젝트의 산물로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 역사학회 웹사이트에 업로드 함. 아마도 이런 식으로 교수들과 학교 교사들을 연결시킬 수 있으며 한국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임. 이 프로젝트에는 Funding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대학교수들에게는 연구 성과, 평가 등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와 홍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교수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참석한 교수들(SOAS, UCLaN, Sheffield 등 한국학 운영 대학교) 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영역(예: 지리, 역사, 음악, 정치 경제, 종교)을 커버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대학교 교수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함. 어떻게 이들을 참여시킬지 전략이 필요함.

- 한국관련 교수학습 자료의 형태는 자료의 사용과 업데이트가 수월한 온라인 자료가 선호됨. 예를 들어, SOAS History Resource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자료를 제공하며 중등학교 교사들을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역사의 여러 주제 다루고 있음.

- 한국관련 교수학습 자료는 교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교사로서 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듣다 보면 거기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영감을 받아서 내 수업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음.

- 한국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되 이것을 어떻게 교사들이 사용하도록 설득할 것인지도 중요함. 학교 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에 한국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자들이 한국에 대한 내용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임.

- 교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기본임. 중등학교 학생들이 개별 연구를 위해 학교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대학교수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함.

- EPQ(Extended Project Qualification) : 한국에 대한 지식을 이 프로젝트의 주제로 포함하는 것을 논의 중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 컨퍼런스 등에서 소개하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어떤 자료를 만들지, 또한 자료 개발이 필요한 과목과 연령대를 고려해야 함. A-level을 위한 자료도 좋겠지만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저학년으로 내려 갈수록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므로 초등학생이나 중등학교 저학년으로 할 지, 혹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할 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임.

- 주영한국교육원이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39개 초중등 학교에는 관심 있는 교사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제안하거나 한국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학교들을 시작점으로 삼아 담당 교사들과의 협력을 시작해 볼 수 있겠음. 이미 열정과 관심을 형성하고 있고 이미 시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제안 사항

○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액션 플랜 마련

- 어떤 과목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 어느 연령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 어떤 자료를 먼저 개발할 것인가(교사 협회에서의 강의를 위한 자료 혹은 온라인 자료 등 사용 범위를 결정)

○ 초중등 방과후 한국어 클럽 담당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제안

- 한국어 클럽 학생들은 한국어 외에 한국의 어떤 분야를 더 알고 싶어 할까?

- 해당 분야(과목)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 영국 교육과정에 한국 관련 내용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 **한국관련 자료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 2023년 영국 교육과정 교과서 개편에 맞추어 한국관련 자료 사전 개발 필요

- 한국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 필요**(1~2년소요 예정)

※ 한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편향성을 의심하며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개발 필요

□ 향후 일정

○ 2020년도 하반기 실적 및 결산 보고(2020.11월)
○ 2021년도 자료개발을 위한 예산 신청(2020.12월)
○ 2021년도 자료개발 용역 체결(2021.3월)
○ 2021년도 자료개발 시작(2021.3월 ~12월)
○ 중간보고 1회(2021.9월)
○ 최종보고 1회(2021.12월)